

정샘 미술 용어 사전



정샘
편저

정샘 미술 용어 사전



CONTENTS

ㄱ		5
ㄴ		34
ㄷ		47
ㄹ		63
ㅁ		73
ㅂ		93
ㅅ		116
ㅇ		154
ㅈ		190
ㅊ		209
ㅋ		221
ㅌ		230
ㅍ		238
ㅎ		257
기타 영문		267
□ 찾아보기		268
□ 참고문헌		289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repeating pattern of yellow lines forming a complex, interconnected geometric shape, resembling a stylized honeycomb or a network of triangles and polygons.

정샘
미술용어사전

[일러두기]

1. 한글과 외래어의 표기는 교육부가 제정한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찾아보기의 배열 순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르고, 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하였다.
3. 모든 표기는 가급적 우리말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번역하여 옮길 경우 이해하기 곤란하거나 뜻이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것들은 원어의 음을 살렸다.
예) 액션 페인팅, 프로세스 아트
4. 외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 고유명사는 원어의 발음을 존중하여 되도록 원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하였다.
5. 본문 가운데 부호 및 기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강조 부분이나 따옴말은 ‘ ’로,
직접적 인용문구는 “ ”로,
참고서적과 참고말은 ()로,
논문·전시명·작품명은 〈 〉로,
저서는 《 》로 표기하였다.



가구

기둥 위나 공포 위에 지붕의 틀을 구성하는 부재. 지붕의 무게 고루 분산시키면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의 총칭.

가구식 구조

【건축】

수직의 지주가 수평의 인방(引防,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르는 가로재)이나 보를 지지하는 구조법.

가노파

일본 무로마치(조선 초기) 후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중국의 송원화를 모방해서 그려던 유파. 야마토에 전통 계승한 도사파를 적극 수용하여 서원건축의 장식화인 쇼헤키가 제작.

가라에

일본 헤이안 시대 이후(무사시대)로 사용되었던 회화 용어. 가라는 중국에서 수입된 그림 혹은 중국을 제재로 했던 일본화를 지칭함.
⇔ 야마토에.

가람

불교사찰.

가마

도자기를 굽기 위한 시설물. 도요라고도 함. 원시시대에는 노천에서 점토로 빚은 토기를 구워서 산소가 많아 산화염이 됨.

【종류】 승염식, 도염식, 오름가마 등.

☆☆☆

가마쿠라시대

12세기 말의 가마쿠라바쿠후 성립에서 비롯해 1333년까지의 1세기 반 동안의 미술을 일컬음. 무사들에 의한 신정권이 수립됨으로써 그에 따라 남성적 문화가 싹틈.

【조각】 사실주의에 의거한 운케이 양식 확립.

【회화】 불화는 송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토신앙의 유행이 반영. 사실적인 초상화의 발달. 에마키도 다채롭게 전개됨. 후기에 송의 영향으로 수묵화 등장.

가법혼색 additive mixture of colors

색료의 혼합에 대하여 색광의 혼합을 말하며 가색혼합 이라고도 한다. 가법 혼색으로 많은 색을 만들려면 적·녹·청 등 빛의 3원색 선정을 필요로 한다. 빛의 혼색일 경우 혼합 성분을 늘릴수록 밝아져서 백색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가법혼색이라고 한다. 또한 눈의 망막 부위의 같은 곳에 동시적 또는 (아주 빨리) 제시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색자극이 주어져 특정한 색채 감각을 일으키는 것도 가법혼색 또는 가산(+)혼색이라 부른다.



● 원색 혼합 비율 1:1:1



● 원색 혼합 비율 1:1:1

가상현실

컴퓨터에 의한 합성정보를 직접 제시하고 인간 주위에 인공적인 공간을 생성하는 것. ①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 시계를 컴퓨터 영상으로 덮는 것. ② 데이터 글로브 : 체험자 신체의 움직임과 위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손장갑 장치 데이터 셔츠. ③ 데이터 셔츠 : 신체 전체의 움직임을 바로 전달.

가상현실과 미술

가상현실이란 직접체험이 아닌 의사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함(VR).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술=버추얼 아트(Virtual Art). 미디어는 내용이며, 내용은 곧 미디어로 '보는 것'이 '하는 것'이 됨. 제프리 쇼 - 인터랙티브 아트 / 제니 홀저 - 전광판을 이용한 트루리즘.

가소성

성형이 자유로운 재료로 계획된 외부 형태에 서 느껴지는 조소적인 특징.

가압성형 加壓成型, Press-Forming

압축성형이라고도 하며 석고틀에 점토를 눌러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또는 타일 등을 성형할 때 점토가루를 놓고 찍어내는 방법.

★★☆

가야미술

문화적으로 신라 문화권에 속하고 있었으나 낙동강 서안이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리 관계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접촉이 많았음. 530년대까지는 모두 신라의 세력

하에 들어갔으며, 562년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신라화 됨.

【고분】 전기 - 널무덤, 덧널무덤 / 후기 - 돌덧널무덤.

【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 고배 이단일렬배치로 구멍이 뚫린 다리(신라와 차이점) / 적갈색 연질 토기.

간가결구

서예에서 자획 간의 연결·배합·조합 형태와 여백의 배치를 포괄하는 말.

★★☆

간다라 미술

서북인도에서 1~5세기에 번성한 미술. 서방 문화 중 특히 로마와 파르티아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음. 헬레니즘 미술이 간다라 미술의 등장 배경이 됨. 가장 이른 시기의 상들은 2~3세기에 만들어진 청회색의 편암이나 녹색조의 천매암을 조각한 불·보살상과 불전도를 나타낸 석상. 조각상의 얼굴 모습이나 옷주름 표현은 로마적인 전통과 연관되는 요소 많음. 석조 이외에 석회에 모래를 반죽하여 만든 스투코도 1세기부터 사용. 스투코는 약 3세기부터 스투파나 비하라를 장식하는 주된 재료가 됨.

★★☆

갈필

먹물의 사용을 억제하여 마른 듯한 상태의 붓으로 그리는 수묵화의 기법. 먹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습필·윤필과 다름. 먹이 묻은 부분과 묻지 않은 부분이 한 획에 함께 나타나서 거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초속적 일기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됨. 황공망의 피마준, 예찬의 산과 나

무 표현, 명의 유민화가, 명말 청초 안휘파와 개성과 화가들, 남종화 계통에서 주로 사용.



〈전기 계산포무도〉, 조선 말기

감광유제

필름이나 인화지가 빛에 반응하도록 그 위에 바르는 감광성 물질. 보통 할로겐화은(AgX)이 쓰임. 결정입자가 커서 감광유제층이 두터워지면 빛의 반응하는 속도가 빠른 고감도 유제가 되며, 화상은 거친 입자와 낮은 콘트라스트를 가지게 됨. 반면 작은 결정입자에 의한 얇은 유제층은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린 저감도 유제를 형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와 높은 콘트라스트·고해상력의 화질을 갖게 됨.

감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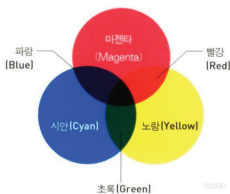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절차를 그린 불화. 아귀에게 감로수를 배풍다는 신앙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림의 하단에는 아귀가 그려져 있음. 형식은 상단과 중단·하단으로 나눔.

〈우란분경변상도〉 ❶ 상단 : 7여래, 인로왕보살, 아미타내영도. ❷ 중단 : 의식장면 도설. ❸ 하단 : 6도중생, 백중날의 행사(풍속화적 요소).

감법 혼색 subtractive color mixture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어두워 보이는 혼

색. 물감을 섞거나 필터를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 순색의 강도가 약해져 어두워지는 것을 말한다. 마젠타(Magenta), 노랑



(Yellow), 시안(Cyan)이 감법혼색의 3원색이며 이 3원색을 모두 합하면 검정에 가까운 색이 된다. 감산혼합, 색료혼색이라고도 한다.

감장

금판 위에 청옥 등을 박은 알집을 또 다른 금판으로 만들어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 ‘알물림’이라고도 함.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금장신구 장식기법으로 주로 사용. 이후 입사기법으로 이행.

감정

감정은 감각적 지각, 욕구, 열망, 내적 표상, 기억, 기대, 의지의 추구, 사유 과정 등을 동반하는 모든 쾌와 불쾌의 체험을 포괄. 고도의 감정으로 도덕적 감정, 지적 만족감, 미적 감정 등이 있음. 미적 감정은 작품의 내용, 형식, 대상, 인격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서 환기되는 갖가지 상태. 예술작품의 생성에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대 이래 감정의 의의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영감 즉 ‘신적 광기’는 감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플라톤의 전통에 따르면 영감에 모든 결정적인 역할이 귀속되기 때문.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은 영감 외에도 예술적 기법의 역할과 그 영향의 예측을 강조함. 플라톤은 음악과 시를 통한 열정의 자극에서 이성적 삶

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보았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파토스) 통한 공포와 연민의 자극을 그러한 정열의 정화(카타르시스, <죽어가는 니오비드의 딸>)로서, 또 그것을 통하여 이성적 심신 상태가 재회복되는 것으로서 이해. 아도르노와 같은 형식주의자들과 모더니즘 예술의 옹호론자들은 예술적 창조 과정의 원천과 지표로서의 감정을 거부하는 대신, 형식에 대한 의식 끌어들이.

☆☆☆ 감정이입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에서 나타나는 표정 현상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대상이 가지는 고유의 감정을 추측하는 심적 활동. 립스 : 미를 관조할 때 대상과 그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의 감정이 하나로 일치된 상태라 정의. 이를 미적 의식의 본질로 규정하여 예술에 적용. 보링거 : 예술창작의 욕구를 복돋우는 원동력의 하나로 규정함. 감정이입을 방해한 경우는 제스퍼 존스, 스틸라 작품을 들 수 있음.

☆☆☆ 감정이입 미학

19세기 중엽 피서가 자연미의 미적 관조를 일상적 지각이나 과학적 관찰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립스가 미를 관조할 때 대상과 자아감정이 융합·동일된 상태를 감정이입이라 규정, 이를 중심으로 미의식을 설명하여 감정이입의 미학을 주창함. 보링거는 감정이입 개념을 예술창작의 근본적 충동에 적용하여 예술의욕을 규정하는 두 가지 근원으로서 감정이입 충동과 추상 충동을 대치시킴.

감지

고려. 감람색으로 착색한 종이.

☆☆☆ 감필묘

붓질을 많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선으로 자유분방하고 빠른 속도로 그리는 기법. 원래는 글자의 자획을 줄여서 쓰는 서예의 기법이었으나 당말오대 때부터 회화기법으로 응용되기 시작하여 남송 양혜에 의해 확립. 대상의 본질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므로 일품화가나 선승화들이 사의적인 인물화를 그릴 때 사용.



<김명국>, 조선중기

갑발

내화토로 만든 함.

[용도] ① 그릇을 가마에 쌓을 때 그릇 위에 씌워서 그릇에 재가 앉는 것 방지. ② 불길이 직접 그릇에 닿지 않게 함.

[장점] 그릇과 그릇을 포개어 굽는 것보다 질과 색이 우수. 그릇 내저에 모래받침 자국이 남지 않아 완성도 높은 그릇 제작 가능.

[단점] 많은 비용이 듦.

갑번	갑발에 넣어 정교하게 제작하는 방식
갑기	갑발을 사용하여 만든 그릇

[도자] 도자기 번조시 사용하는 내화토로 제작한 그릇 덮개이다. 소성 과정에서 가마 안에 날아다니는 재나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 등 각종 불순물로부터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덧

씩우는 일종의 보조 장치를 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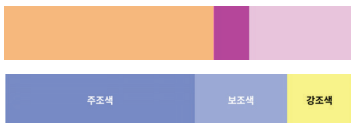
강남산수

강남지방의 특유한 지형을 표현한 그림. 오대 동원, 자연이 양식 정립. 평담고아한 방식으로 그려진 둥근 언덕과 부드러운 형태의 지형이 표현됨. 강남지방의 지형과 분위기 나타내기 위해 피마준, 비백서, 초서의 법 활용한 묘사법, 호초점 사용. 원사대가와 명대 오파 등 계승.

강조색 액센트 컬러, accent color

【색채학】

전체의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강조하는 색. 포인트를 주어 전체 분위기에 생명력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한다.



★★★

개념미술

미술 작품의 물질적 측면보다는 관념성의 비물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대지미술 포함. 1960년대 후반 미국의 평론가 펠로가 점차 지적인 사고 조작을 중요시한 나머지 어떤 극한에 도달한 상태의 현대미술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대부분의 미술 작품이 형식(작품)과 내용(개념)으로 성립되는 것에 비해 일방적으로 개념을 중시하여 작품이 언어적인 의미내용과 제작이념에 완전히 종속되며 작가의 사고 자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경향을 총체적으로 일컫음. 근대적

예술관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두 경향으로 나뉨(전자-유럽, 후자-미국).

【형식】 자료형식, 언어, 레디메이드, 개입.



〈조셉 코주스〉

★★★

개념예술

1960말 미니멀아트 이후 태동된 현대미술의 한 조류. 명칭은 에드워드 키엔홀츠가 만들고 존 펠로우가 일반화 함. '개념'을 작품의 가장 중요한 양상이라 한 솔 르윗의 글이 미니멀 아트에서 개념예술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됨. 제작과정이나 아이디어를 중시함(아이디어 아트). 미술작품 자체가 제거되고 형이하학적 형태로 가시화시키기 어려운 관념적 측면 강조. 시각적, 물리적 대상에서 탈피한 정신적 이미지의 전달이 부각. 이론에 치중한 미니멀 아트의 귀결이자 반발. 최초선구자는 다다의 뒤상. 조셉 코주스, 요셉 보이스, 로저 엑클링, 오펜하임, 월터 드 마리아, 브루스 나우만 등. 미술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고 전달의 매개물로 말, 글, 영상들을 채택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주제 추구. 급변하는 시대상황의 비판적 수용의 실마리를 제공함. 그러나 미술의 상품가치를 거부하여 미술관, 화랑 등 전통적 유통회로와의 절연을 초래. 1980년대 말 포스트모더니즘시기에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채택한 작가들 사이에서 다시 나타남. 제니 홀저, 톰 필립스 등. 대표적 단체 : 미술과 언어.

개자원화전

중국 청초에 간행된 화보. 책의 첫 머리에 화론의 요지를 싣고 그 다음에 화가의 기법, 마지막에는 역대 명인들의 작품을 모사하여 게재하는 식으로 구성. 목판 채색술과 같은 인쇄술의 뛰어난 성취를 보임. 강세황.

청초(淸初)의 미술사가 왕개(王概)는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에 18가지의 준(皴)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갤러리 Gallery

【건축】

지붕으로 덮인 회랑이나 복도. 교회 건축에서 아일(Aisle, 교회의 통로 부분) 위의 상층부.

거리미술

야외 조각전시, 낙서, 벽화, 거리 연극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 공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공개한다는 공통점을 가짐. 정치적인 의미 내포. 작가의 개인 신화, 정치적, 대중적인 내용 등. (키스해링, 바스키아).

★★★

거리예술

야외전시, 거리 퍼포먼스, 해프닝, 포스터, 포스터, 낙서, 벽화 등 개방된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행하는 예술을 포괄적으로 지칭. 1930년대 멕시코 벽화주의, 1970년대 개념예술, 플럭서스 그룹, 1980년대 슈퍼그래픽, 그래피티 아트. 공공예술의 성격.

거비파

비교적 짙은 수묵을 많이 써 직사각형 꼴의 대산대수를 장엄한 느낌이 나도록 그렸던 오대와 북송 화가들. 형호, 동원, 이성, 범관, 허도녕, 광희, 이당. 고려 <어제비장전>.

건성유

식물의 유지에서 채취한 것. 유화 물감을 녹이는 기름에 섞어 물감의 건조를 빠르게 하는데 사용. 점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착력이나 내구성에 뛰어난 광택 있는 화면이 됨. 포피유, 린시드유.

건축조소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조 목적이나 기능을 암시하는 역할 외에 장식성도 함께 지닌 조소. 건축과 조소의 이분법적 관계를 벗어나 통합을 추구. 실용성과 미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

✦ 현대미술에서의 건축조소

① 모더니즘: 장식성을 거부하고 장르 간 순수성,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자 건축과 조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분리 됨 (미니멀아트,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등). ②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대중화 현상과 함께 공공예술의 중요성이 재검토되어 건축과 조소의 결합이 다시 긴밀해짐.

건칠 乾漆

모시나 삼베를 심으로 하여 칠을 입히는 것을 협저라 한다. 이런 협저(夾紵)라는 옷칠 기법. 방법에 따라 탈건칠(脫乾漆)·목심건칠(木心乾

漆)·목조건칠(木彫乾漆)로 나누며, 주로 식기류나 불상을 만드는데 이용되어 왔다.

◆ 제작방법

① 탈건칠 : 건칠불상에서 탈건칠, 즉 탈공건칠 기법에 의한 제작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어졌다. 우선 나무심을 짜고, 그 주위를 소토(塑土)로 메워 대체적인 형태를 만든다. 그것이 굳어지기를 기다려 삼베를 칠로 칠해서 발라 붙인다. 이것을 여남은 겹칠로 덧붙여 말라서 굳은 뒤에는 형태의 본이 된 소토의 형(型)을 내부에서 떼내어버리고 속이 비게 한다. 이것을 탈공협저(脫空夾紵)·탈활협저(脫活夾紵)라고 부른다. ② 목조건칠 : 불상을 나무로 조각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건칠기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다. 대체적인 선들은 나무를 조각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나, 섬세하고 정밀한 표현은 협저를 이용한 칠의 조각으로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나무가 원형이 되므로 제거하지 않는다. ③ 현재의 건칠 : 현재는 점토로 만들고자 하는 기형(器形)을 조소(彫塑)해서, 석고로 외형을 뜨고 그 안 면에 칠을 하고 삼베를 발라서 말린 뒤, 외형에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쓴다.

게릴라 걸스



1985년 뉴욕에서 결성된 익명의 여성미술가 그룹. 1984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근래의 회화 및 조소의 국제적 개관>전에 참가한 미술가들 중 여성이 10%도 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결성. 주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테마로 하여 그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를 거리의 포스터, 벽보, 수치적 발표, 강연, 퍼포먼스 등을 통해 직접 고발하는 식.

☆☆☆

게슈탈트 심리학과 미술

게슈탈트란 ‘형상’, ‘윤곽’을 뜻하는 말로 영어의 ‘형태’와 같은 의미. 형태심리학으로 번역됨. 20C 초 성립된 형태심리학파의 주요 개념. 인간의 시지각은 세부보다 전체적 특성, 궁극적으로 조각조각 분해할 수 없는 구조적 형태를 먼저 파악한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함. 루돌프 아른하임이 게슈탈트 원리에 입각한 예술 이론 정립.

◆ 시지각의 기본 법칙

① 접근성 : 보다 가까이 있는 시각요소들끼리 패턴이나 묶음으로 보일 가능성이 큼. ② 유사성 :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등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요소들끼리 연관되어 보이는 경향. ③ 연속성 : 유사한 시각요소의 배열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는 것. 공동운명의 법칙이라고도 함. ④ 폐쇄성 : 폐쇄된 형태끼리 묶이기 쉽고 윤곽선이 불완전한 형태라도 완전한 형태로 보이기 쉬운 것. ⑤ 전경과 배경 : 예외도 있으나 형태의 인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관계에 의존하거나 영향을 받음.

☆☆☆

게슈탈트 이론

심리학적 미학의 방향. 베르트하이머, 켈러, 코프카 등에 의해 몇 가지 게슈탈트 법칙이 확정됨. ① 도형은 불명료한 배경에서 확실하게 부각된다는 것. ② 공간적 시간적 근접이나 유사성은 요소들을 하나의 형태로 결합한다는

것. ③ 둘러싸인 것과 배제되지 않은 것은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는 것.

★ 계슈탈트 학파의 다섯 가지 보조원리

① 상 - 배경의 원리. ② 구별의 원리. ③ 밀폐(폐쇄)의 원리. ④ 좋은 계슈탈트의 원리(익숙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 ⑤ 동형구조의 원리.

☑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접성', '유사성', '폐쇄성', '연속성', '형과 바탕의 원리' 등이 있다.

계잡트콘스트베르크

19세기 말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에 의해 정립된 개념. 모든 예술 분야의 종합을 뜻함. 총체예술. 종합예술.  오페라.

격자 천장

움푹 들어간 궤형의 천장틀로 돔이나 볼트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천장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쓰인다.

결구법 結構法

점·획을 결합·구성하는 법. 용필은 글씨의 점과 획을 만드는 법이고, 결체는 생동하는 점·획을 결합 조직하는 방법으로 옛부터 간가·결구 또는 분간·포백이라고도 하여 서법의 중요한 줄거리로 전해 내려왔다. 엄밀히 말하면 간가는 점획의 간격을 적당하게 체계를 맞추는 것이고, 결구는 일점일획을 조직하여 조립하는 것이다. 간가는 글자가 자간 점획의 분할과 분할된 여백의 공간적 등분을 의미하고, 결구는 점획으로 조직된 글자의 자세와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경직도

동양 인물 풍속화의 한 화제. 농민의 부지런함과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임금에게 알리고, 농업과 잡업에 대한 정책에 힘쓰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작. 일종의 권계화로 왕실의 교육에 이용됨.

계화

건물, 배, 수레 등을 소재로 자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그리는 것 또는 그 기법.

계회도

문인들의 계모임을 묘사한 그림. 표제와 인적사항을 적은 좌목 첨가. 풍속적인 경향. <호조낭관계회도>, 1550. 1기 산수중심, 2기 인물중심.

★★☆

고고유사묘

중국 인물화에서 옷 주름을 그리는 방법의 한 가지. 붓끝을 살려 가늘고 길게 계속 이어진 선묘. 복제의 조종달, 고개지, 육탐미 사용.



고고유사묘

고구려 미술

기원전 2~1C에서 서기 7C까지 약 700년동안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걸쳐 나타난 미술. 중국, 화북 지방, 북방 이민족, 서역 및 남시베리아의 영향을 많이 수용. 낙랑 미술의 전통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남쪽으로 퍼뜨리는 중간자 역할. 묘제 미술과 불교 미술은

백제, 신라, 일본에 영향 줌.

【건축】 현존하는 예 ×, 고분벽화 기록에 의거하여 추측. 가람배치 - 팔각탑 중심 동서북 삼면에 금당 → 1탑3금당. 팔각주 방주, 원주 등 기둥과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 치미와 수막새 기와장식, 인자형대공, 동자주 설치 → 전통적인 목조건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매우 발달된 건축양식 존재.

【조각】 불교 조각 중심.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 수용.

〈연가7년기미년명 금동여래입상〉	중국 북위, 동위 초 양식에 고구려 특유의 소박하고 강직한 특징
〈금동반가사유상〉	삼국시대에 유행한 반가사유상 초기의 예를 보여주는 형식
〈니조불보살상군〉	부드럽고 풍만한 조형성

【회화】 고분벽화로 알 수 있음. 일본회화에 영향 다.

초기 (4C중반~5C)	묘주 초상 중심, 풍속화적 요소, 불교적 요소, 신분제에 따른 인체 비례, 초보적 요철법.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중기 (6C)	풍속도 유행, 〈각저총〉의 수렵도에는 긴장감과 활력이 넘치는 고구려 회화의 특징이 잘 나타남. 〈무용총〉, 〈각저총〉.
후기 (6C말~7C전반)	사신도가 주로 다루어짐. 〈사신총〉, 〈강서대묘〉, 〈진파리 고분〉 등.

① 고구려 인물화 특징 : 풍속화적, 불교적 요소, 주대중소, 요철법 표현. ② 〈무용총〉의 공간표현 : 백 - 주황 - 황색, 동적.

【공예】 고분벽화를 통하여 추정. 절풍, 귀고리, 허리띠 등.

고딕Gothic

뾰족한 석조 아치, 리브 볼트, 스테인드 글라스, 플라잉 버트레스 등의 특징을 가진 중세 건축 양식.

★★★

고딕미술

유럽의 중세미술에 있어서 로마네스크 미술 다음에 나타난 양식. 시기상 12C중엽~16세기 초. 본격적인 의미는 12세기말부터 약 1세기 유지. 고전적 성격을 띤 전성기 고딕, 13세기말 이후 바로크적 성격이 강해진 것을 후기 고딕이라 함. 후기 고딕 중 특히 1400년부터 약 반세기는 플랑드르 화가들의 사실주의에 이탈리아 화파의 영향이 섞인 궁정취미의 우아한 회화양식이 주를 이룸. 이러한 경향을 국제적 고딕 양식이라고 함(장식적, 우아, 사실적 표현).

로마네스크	고딕
• 형성, 발전 - 대수도원들 역할 • 수도사들이 미술에 종사	• 도시의 궁전, 공동체가 발주자 • 미술가 - 세속의 전문가 • 기술적 발달 뚜렷 • 조각, 회화 → 사실주의 경향

【건축】 교차 늑재 궁륭, 플라잉 버트리스, 부벽, 첨두아치. 형태상 상승감 강조.

최초의 순수한 고딕	후기 고딕
• 생드니 성당 • 노트르담 성당	•느를, 트레이서리 등이 세분화 •플랑보아양 양식(프랑스) •장식적 양식(영국) •기하학적 수직 양식(영국) •실용건축으로서 고딕 양식 발달

【조각】 고전적인 균형 지향. 로마네스크 조각의 상징주의적 표현에 비해 자연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경향.

12세기 중엽	후기 고딕
건축과 조화(샤르트르) ↓ 점차 건축적 원칙에서 탈피 ↓ 자연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를 다루게 됨 (샤르트르 남북 문턱, 아미앵)	건축으로부터 독립 (단독 조각의 발달과도 병행) ↓ 전형적인 고딕 조각(13C초) (랭스, 방베르 성당) 이상주의, 자연주의

【회화】 14C초~15C말 양식화, 선적인 특징, 고딕식 흔들림(지오토, 보티첼리). 15C 사실주의 회화(플랑드르, 반데르 바이덴 등).

스테인드 글라스	고딕 성당 건축의 특수한 조건에 조응
미니어처 회화	13C 후반 프랑스
타블로화	13C
타피스트리	14C 급속히 발달. 애플 주변이나 기둥 사이에 이용. 성당 건축의 벽면 장식.
패널화	14C 두치오부터 일반화

고딕의 부흥

건축에서 18C 후반~19C 내내 행하여진 고딕 양식의 부활. 영국.

☆☆☆

고려 나전칠기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특징은 흑칠 위에 나전, 대모, 은사, 동사를 감입하여 무늬를 만듦.

① 전복껍질을 종잇장 같이 얇게 갈아서 사용한 박패법(당나라에는 ×). ② 대모를 얇게 갈아서 그 뒷면에 붉은 채색을 칠하여 표면이 비쳐보이도록 하는 복채법. ③ 당초문의 덩굴줄기나 무늬와 무늬의 경계선 등으로 금속선 사용(조선시대에는 사용 ×). ④ 국화문과 당초문을 전면에 가득 밀집배치(조선시대에는 문양의 구도와 대칭이 흐트러지고 여백도 많이 남김). ⑤ 귀족적 취향에 영합하여 정교하고 우아함.

☆☆☆

고려미술

918~1392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미술. 문화적으로는 송을 가까이 하였고 12C 중엽에 전성기를 누림. 고려양식의 특색은 직선의 기피와 구성요소의 조화. 13C 중반부터 몽골의 침입과 국력의 피폐로 쇠퇴.

【건축】 왕궁, 대규모 불교 사찰 건립 왕성. 초기 요 영향, 후기 원 영향, 몽골 항쟁기 남송 수용.

① 목조

주심포	• 외관상 간결하고 명쾌한 효과 •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다포	• 고려 말기에 들어와 조선시대에 성행 • 장식성이 강함 • 〈심원사 보광전〉, 〈석왕사 응진전〉

② 석조

석탑	• 초기 신라 양식 계승 → 부분적으로 차츰 변화 – 탑신부의 비례가 좁고 높아져 전체적으로 웅대 – 옥개석 받침의 층수가 적어져 안정감 하락 – 옥개석의 네귀가 위로 더욱 들림 • 〈보천사지 오층석탑〉, 〈보천사지 삼층
----	---

	석탑), 〈현화사 칠층석탑〉 • 육각이나 팔각 등의 다각탑 출현 〈금산사 육각 다층석탑〉, 〈영명사 팔각 오층석탑〉, 〈보현사 팔각 십상층석탑〉 • 후기 원의 라마양식 수용 〈경천사 십층석탑〉
부도	• 전대의 팔각원당형 계승+사각당형, 석종형, 석등형, 불탑형 등 새로운 형식 나타남 • 전대에 비해 표면 장식 표현 더욱 정교, 화려

【조각】 불교 조각이 주류

전기	• 거대한 석상 • 독특한 철불의 조성(신라 말기부터 유행) • 조형기술상 퇴화 • 지역적 특색
후기	• 원의 지배하에 있던 14C 이후 퇴조가 나타남 - 경직된 사각형의 얼굴 - 두꺼운 옷주름 - 형식적으로 변잡해진 세부표현

【회화】 도화원 설치. 화원, 왕실, 귀족, 승려들이 폭 넓게 회화에 참여. 전대의 회화를 바탕으로 송·원의 영향. 불화, 고분벽화.

【공예】 나전칠기. 청자. ❶ 나전칠기: 당의 평탈기법에서 유래. ❷ 청자: 철화, 철채, 진사채, 화음, 연리문 청자 등.(철화 청자는 산화염으로 구워냄. 철채청자는 청자태토 위 철사 안료로 그릇 전체 칠하고 청자유약 시유. 진사채 청자는 청자 초벌, 진사로 그림).

11C 중반	송의 월주요 기법을 받아들여서 본격적인 고려청자 완성
12C	고려만의 독창적인 상감청자 활발히 제작
13C 중반 이후	바탕색도 거칠게 되고 상감이나 철화의 전면이 크게 부각되면서 분청사기의 출현 예고

고려 비색

【도자】

→ 비색 청자. 고려 중기의 청자를 지칭하는 용어. 1123년 고려에 내방한 송 사신단의 서궁(徐兢)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도자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翡色)이라 부른다’라고 서술하였다. 비색이란 푸른 빛의 유색을 가진 도자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독특한 조형과 높은 완성도를 가진 고려 청자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고비

한국 전통 목가구 중의 하나. 벽에 걸어두고 편지나 두루마리 등 꽂아두는 소형 가구.

고사 산수

산수화의 한 화제. 자연을 배경으로 꾸민 신화, 역사적인 인물에 얽힌 일화나 이야기를 산수 중심으로 그린 것. 산수보다 인물이 화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고사인물화라고 부름. 〈백택도〉- 황제 신화. 〈섬계방대도〉- 왕희지의 일화. 〈명황행축도〉- 현종의 일화. 〈비파행도〉- 백거이. 〈적벽도〉- 소식.

고속파

중국 명말 청초의 문인화가 소운종을 시조로 하는 화파.

고의론 古意論

【동양 화론】

옛사람의 필의(筆意) 즉 서화의 정신, 기세 풍운(風韻) 등을 배워야 한다는 이론이다. 원대 조맹부가 주장하였으며 ‘귀유고의’라고 주장했다.

★★★

고전주의

고대 그리스, 로마인이 이룩한 바와 같은 단정, 간소, 전이한 예술양식을 모범으로 삼는 예술의 경향.

★ 양식 개념

① 바로크 미술에 대립하는 기본적인 표현 양식. ② 아르카의 미술 → 고전주의 → 바로크와 같이 전개해 가는 양식발전의 한 단계.

【공통점】 고전주의의 본질을 아르카이즘의 소박, 생경한 표현, 바로크의 격하고 다이내믹한 화려함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 합리적 질서에 바탕한 통일성, 안정된 구축성, 조화가 이루어진 정밀한 표현, 부분과 전체의 명확한 관계, 절대적, 영원적인 것의 지향에서 찾을 수 있다.

★ 뵐플린이 요약한 고전주의의 특징

선적인 특성, 평면성, 닫혀진 형식, 다수적 통일, 절대적 명료성.

★ 고전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예

① 16C 중엽 북이탈리아 건축가 팔라디오에서 출발한 유럽의 건축 양식. ② 신고전주의: 17~18C 바로크,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동, 1770~1830년경 루이 왕조의 궁정 미술을 극복하려고 일어났던 유럽 예술 양식. 두 시대 모두 그리스 및 로마 미술이 강한 자극과 영감을 제공.

★ 조각과 회화

【조각】 주요한 테마는 인간, 대리석.

【회화】 다비드 <호라티우스가의 맹세>를 처음으로 고전주의 회화의 여러 가지 특질인 옛날식의 고전적 소재와 내용, 명백하고 엄격한 구성, 뚜렷한 윤곽, 차가운 느낌의 색채가 나타남.

고쿠소우루시

【동양미술】

백골과 같은 목재의 톱밥에 호칠을 반죽하여 만든 곡수칠로 메우는 방법. 일본 아스카 시대(7세기 전반) 목조보살반가사유상은 1904년에 수리를 한 것인데, 수시시에 얼굴이나 상반신 표면을 덮고 있던 건칠을 제거하고 얼굴도 약간 깎아낸 뒤 결손 부분을 고쿠소우루시로 메워서 수리했다.



고쿠소우루시 적용 사례:
<목조미륵반가사유상>
7세기 초, 일본 교토 교류지 소장.

고형 주입 성형

안팎의 형을 가지는 일정한 두께의 석고형 속에 흙물을 부어 넣어서 석고형 속에서 흙물이 석고의 흡수성에 의해 굳어진 상태일 때 석고형에서 떼어 내는 성형 방법이다. 주로 컵의 손잡이나 타원형 접시와 같은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고화품록

중국 남북조시대 남제의 화가 사혁이 저술한 화가품평서. 책의 서문에 서술된 육법은 그림을 그릴 때 꼭 있어야 할 6가지의 창작 원칙으로, 사혁이 이를 기준으로 그림의 우열을 나누어 이래 회화평론의 중요한 기준이 됨.

육법: 기운생동, 골법용필, 응물상형, 경영위치, 수류부채, 전이모사.

공간

시각 예술의 조형요소 중 하나로 삼차원 혹은 사차원성을 지향하는 요소. 시각적 효과 차원에서 균형이나 움직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형에 있어서 소재 간의 공간처리는 매우 중요. 좁게는 화면상의 공간처리 기법으로서 남겨놓은 것, 즉 여백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음. 현대 조각에 있어서 공간이라는 문제를 새로이 제기한 가보와 페브스너는 종래의 매스 편중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 조각에 시간과 공간의 통일적 형식을 실현하기 위해 리듬을 도입. 모홀리나기는 모빌 조각의 이론적 선구자가 됨.

☆☆☆

공간그룹

1951년 구성주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신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창설된 단체. 앙드레 블로크, 텔 마름, 니콜라 쇠페르 장그랭, 에티엔 베오티. 자연의 재현 거부, 순수한 조형요소로의 환원을 시도한 구성주의와 몬드리안의 사상을 더욱 철저화시킨 신조형주의에 기초하여 쿨아트 전개시킴. 구성주의, 신조형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공간예술을 추구하고 비개인적, 사회적인 미술을 지향한데 의의. 앙포르멜 작가들과 함께 1949년 파리 추상미술 전문지 <오늘의 예술>에 자주 소개됨.

◆ 공간주의, 제로 그룹 등과의 연관

폰타나 공간주의 → 1960년대 제로 그룹에 영향. 제로 그룹의 라이트 아트, 키네틱 아트, 공간주의적 성향. → 공간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의 작품경향과도 연계성 가짐.

☆☆☆

공간주의

이탈리아 화가 폰타나에 의해 제창된 예술운동. 제 2차 세계대전 후 밀라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간주의 선언>을 동반하여 예술표현 영역의 확대를 지향.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탈피하고 공업사회의 재료와 기술수단을 취급하며 4차원적인 공간을 표현. 이러한 시도는 소재와 표현의 해방, 제작자와 관중과의 관계, 예술의 사회성을 시사.

1910 초 미래주의 이후 이탈리아. 폰타나가 1946년 제창한 미술운동. 폰타나는 1930년대부터 데 스틸의 영향으로 추상작품 제작. 1934부터 추상창조그룹에 가담하였으나 파쇼 체제에 의해 독자적인 예술 활동이 방해 받아 1939년 아르헨티나로 건너감. 공간주의는 그곳에서 기거하던 중 1946년 <백색 선언>을 통해 새롭게 발표 된 미학 개념. 기존의 환영주의 미학을 타파,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기초를 둔 새로운 예술이론. 구체미술에서 제창된 내면적 관념의 가시화에 다다에서 나타난 파괴정신이 결합됨. 회화와 조소의 전통적 구분을 없앤 새로운 공간개념을 요체로 함. 1950년대 발표된 단색의 캔버스에 구멍을 뚫거나 칼로 찢은 폰타나의 작품들은 공간의 직접적 창조. 모노크롬을 선택한 이유는 찢기거나 구멍 난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 보수적이던 이탈리아 화단에서 폰타나의 공간개념은 전통적 미술 개념에 도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되어 1960년대 유럽의 아방가르드 단체 놀 그룹, 제로 그룹 등에 영향.

◆ 폰타나 <백색선언> 1946

기존미술의 미학을 타파, 시간과 공간의 통일에 기초를 둔 새로운 예술을 발전시켜야 함. 기계 시대에 알맞은 포름의 변화 요구. 해프닝

과 퍼포먼스를 예고함.

◆ 이탈리아 미술 순서

미래파 → 공간주의 → 아르테포베라 → 트랜스 아방가르드.

공감각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느껴지는 복합적 감각을 의미함. 칸딘스키, 클레.

★★★

공공미술

일반적인 의미로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작되고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미술.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말 미국 정부에서 시작한 ‘미술을 위한 일정 지분 투자’ 프로그램과 ‘공공장소의 미술’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전자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건설 예산액의 일정 지분(대개 1%)을 예치해 미술품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 후자는 지역사회에서 공공장소에 전시할 미술품을 제작·의뢰하고 구입하는데 드는 자금과 자문을 도맡아주는 것. 이러한 미술진흥정책과 발맞추어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인식 변화가 1960년대 말에 일어남. 많은 미술가들이 작업실을 떠나 큰 건축적 규모를 요구하는 대지미술과 환경미술형태를 창조하기 시작. 공동작업, 포스트 스튜디오 아트.(공동작업으로 제작의 전 과정을 공통으로 관리하게 됨.)

★★★

공공예술

국가, 지역사회가 지향하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미술. 미술관, 화랑 등 제한된 공간보다는 건물, 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음. 현

대의 공공예술은 스튜디오 아트나 갤러리 아트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갤러리 중심의 주류 미술 또는 상업주의적 미술에 대한 대안적 미술의 개념으로 쓰임.

◆ 현대 공공예술의 발전

- ① 모더니즘~1970년대 초 : 아방가르드 정신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순수성, 단일성 추구. 장르간의 협력관계 불가능. 작품의 예술성 탐구에만 열을 올린 작가들이 주변 환경이나 건축물과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 순수미술의 특성이 두드러져 공공성을 갖추기 어려움.
- ② 1970년대 이후 : 다원주의의 흐름과 함께 포스트모더니즘의 득세로 미술의 사회적 환원과 대중화가 추진되어 주변 환경과 결부시킨 환경예술이 유행. 예술가들의 공공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높아짐. 대지예술 역시 공공예술의 확산에 기여.
- ③ 1980년대 : 공공예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커짐. 대중적인 공공예술을 선호. 이를 계기로 공공예술 제작을 의뢰받은 작가들은 주변 환경 및 다수의 의견을 고려한 작품 제작에 신경.

공동작

두 사람 이상의 작가가 협력하여 만든 작품. 20세기 초 입체주의 피카소, 브라크, 다다의 뒤샹과 만레이 등이 공동작의 길 개척. 1960년대 길버트&조지에 의해 분명한 성격을 지니게 됨. 스튜디오 아트/ 포스트스튜디오 아트.

★★★

공동체 미술

박물관의 죽어있는 예술과 상반된 것. 화랑이나 무대라는 상황을 벗어나 예술행위를 구체

화하고,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술가들의 활동. 거리의 무대, 비디오, 벽화, 교통수단, 기구, 놀이구조를 이용한 보편적인 매체 접근 방법 사용. 공동체 예술가들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구분을 없앴.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동체 벽화 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음. 그룹 : 액션 스페이스, 인터액션.

공예 arts and crafts

미술을 응용한 공작, 금속기, 칠기, 목죽세공, 도자기, 염직품, 자수 등을 말한다. 조각이나 회화는 실용이라는 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구상에 바탕을 두고 창작되는 예술. 이른바 자유 미술인데 반해 인해, 공예는 실제로 실용되는 물건을 예술적으로 병행하는 것, 이른바 응용미술이다. 손과 도구로 하는 수공예도 있고, 기계의 힘을 빌어 생산하는 기계공예도 있다. 공예가 조형예술의 한 특수 영역으로 간주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공필

동양화를 그릴 때 대상물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소홀함 없이 꼼꼼하고 정밀하게 그리는 기법. 가는 붓을 사용하여 상세하게 그리고 채색하여 화려한 인상을 줌. 주로 화조화, 영모화에 많이 사용. 직업화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음. ⇔ 사의.

과슈

수용성 아라비아 고무를 교착제로 하여 반죽한 중후한 느낌의 불투명 수채물감. **[특징]** ① 두껍게 바를 수 있음. ② 투명한 효과 낼 수

있음. ③ 수채화와 병용 가능. ④ 색조는 선명하지만 유화와 같은 윤기는 없음. ⑤ 혼색을 하면 선명도를 잃기 때문에 주로 단색으로 사용. ⑥ 색과 색을 겹쳐서 복잡한 색감이나 마티에르를 얻음. ⑦ 하이라이트 및 밝은 부분은 백색물감을 혼합하여 그림. ⑧ 마르면 밝아짐. ⑨ 건조된 공기 속에서는 벗겨지기 쉬운 약점.

과정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 작품의 주제로 삼는 미술. 본격적인 의식은 1950년대 액션페인팅에서 시작. 이후 해프닝, 이벤트, 퍼포먼스 등의 개념과 이어짐. 미니멀 아트의 형식주의와 인간 감정 부재에 반발한 것. 전형적인 오브제 이용 과정과 환경을 변혁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의 경험과 행동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시간적인 서술형식을 위한 소재와 재료의 선택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 얼음, 물, 풀, 왁스, 펠트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작품에서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노력함. 어느 곳에서 전시되어도 잘 맞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형태 대신 특정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 (칼 안드레, 에바 헤세 등).

과학적비평

사회학과 심리학, 생리학과 진화론 등의 이론을 풍부히 원용하여 객관주의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비평하는 방법. 주로 사회학적 비평, 심리학적 비평, 역사적 비평 등으로 구분한다.

정삼 미술 용어 사전



ISBN 978-89-6336-817-7



9 788963 368177

13370 >

정가 15,000 원